

□ 시리즈 '문화산업, 이대로 멈춰서는 안된다' - (1)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문화산업 발전의 핵심은 '축적된 문화정보'

21세기 최고의 고부가가치 사업이자 국가경쟁력의 최후 승부처로 평가되는 문화산업, 그러나 우리의 문화산업은 아직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이에 우리신문사는 '문화산업, 이대로 멈춰서는 안된다'는 주제로 3회에 걸친 시리즈를 준비했다.

(편집자)

- 글 쓰는 순서 -

- (1) 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 (2) IMF속의 문화산업 극복방안
- (3) IMF시대의 효율적인 문화생활

인 병 선

(**〈질, 풀 생활사박물관 관장〉**)

내게 주어진 제목은 '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하여'이다. 문화산업이라 하면 문화를 생산한다는 뜻이다. 이 밖에 통용되고 있는 말에는 지식산업, 정신산업, 정보산업이라는 것들이 있다. 어느 것이나 유형이 아닌 무형, 물질이 아닌 정신을 생산한다는 뜻에서는 같다.

문화는 인류가 태어나면서부터 끊임없이 생산되었고 또 지금도 생산되고 있다. 손으로 밥을 꼭꼭 눌러 집어먹는 문화는 중동사람들이 생산한 것이고 숟가락으로 떠서 먹는 것은 한국사람들이 생산한 문화이다.

그러나 이것들은 산업이라고는 할 수 없다. 산업이라는 말은 산업혁명 이후, 정확하게 말하면 공업시대에 와서는 대량생산을 의미하게 되었

다.

아울러 필연적으로 상업주의를 수반하게 되었다. 문화산업은 그러니까 문화의 발생이 아니라 생산을 말하는 것이다. 인간이 의도적으로 공업시대 물질을 생산해내듯 문화를 생산해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인류는 오랜 농업시대를 거쳐왔다. 배고픔을 해결하는 데에 수천 년의 세월이 걸렸다. 기아의 문제가 해결되자 다음에는 안락한 생활을 위한 생활재료의 생산에 주력했다. 많은 물자와 에너지의 개발로 인류의 생활은 상당히 윤택해졌다. 즉, 공업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공업시대에 이어 인류의 문명은 현재 정보시대로 넘어가고 있다. 정보시대의 주생산품은 곡물도 생활재료도 아닌 정보이다. 문화요 정신이요 지식이다. 유형이 아닌 무형이다.

농업의 발달로 인류의 위는 돈돈해졌다. 공업의 발달로 생산재료가 드는 힘겨운 노동에서 해방되었다.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인류는 지금 정신의 충족을 추구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정보시대인 것이다.

농업시대에도 정보업자는 있었다. 지식을 가르치는 스승들, 신(神)의

정보를 독점한 사제들, 이들은 모두 정보를 팔아 먹고

인류사를 조망하면 '평등을 향한 끊임없는 투쟁'으로 보인다. 곡물 분배의 평등, 생활재료 분배의 평등

의 것은 자연발생적인 것이고 뒤의 것은 인간이 다시 가공한 것이다. 즉 정보를 수집, 저장하여 새롭게 어레이지한 것이다.

매일 쏟아지는 자연발생적인 정보는 정보 어레이지의 기초가 된다. 그러려면 정보를 어디엔가 축적해야 하는데 인간의 두뇌로는 감당하기 어렵다. 여기에 필연적으로 등장한 것이 컴퓨터이다.

컴퓨터의 발생과 눈부신 발달은 정보시대를 예고한

컴퓨터는 방대한 양의 정보를 저장하고 재생하는 능력을 가졌지만 정보 그 자체는 아니다. 정보를 축적하고 창조적으로 어레이지하는 것은 전적으로 인간의 몫이다. 컴퓨터는 다만 그 일을 도와줄 뿐인 것이다.

정보의 창조적 어레이지는 정보의 축적이 전제된다. 정보라고 하여 다 선택되고 저장되는 것은 아니다. 저장지에 따라 선택되는 정보와 폐기되는 정보가 있다. 일반적으로 책이나 예술, 신문의 기사는 선택정보이고 상업광고, 잡다한 소문같은 것은 폐기정보에 해당된다.

많은 정보의 선택과 저장에는 장기간에 걸친 노력이 전제된다. 그것은 정보시대에 그 사회의 경제적 토대가 되고 자력이 된다. 보통 미국의 '쥘리안 공원'이 엄청난 돈을 벌었다고 하여 정보산업의 표본처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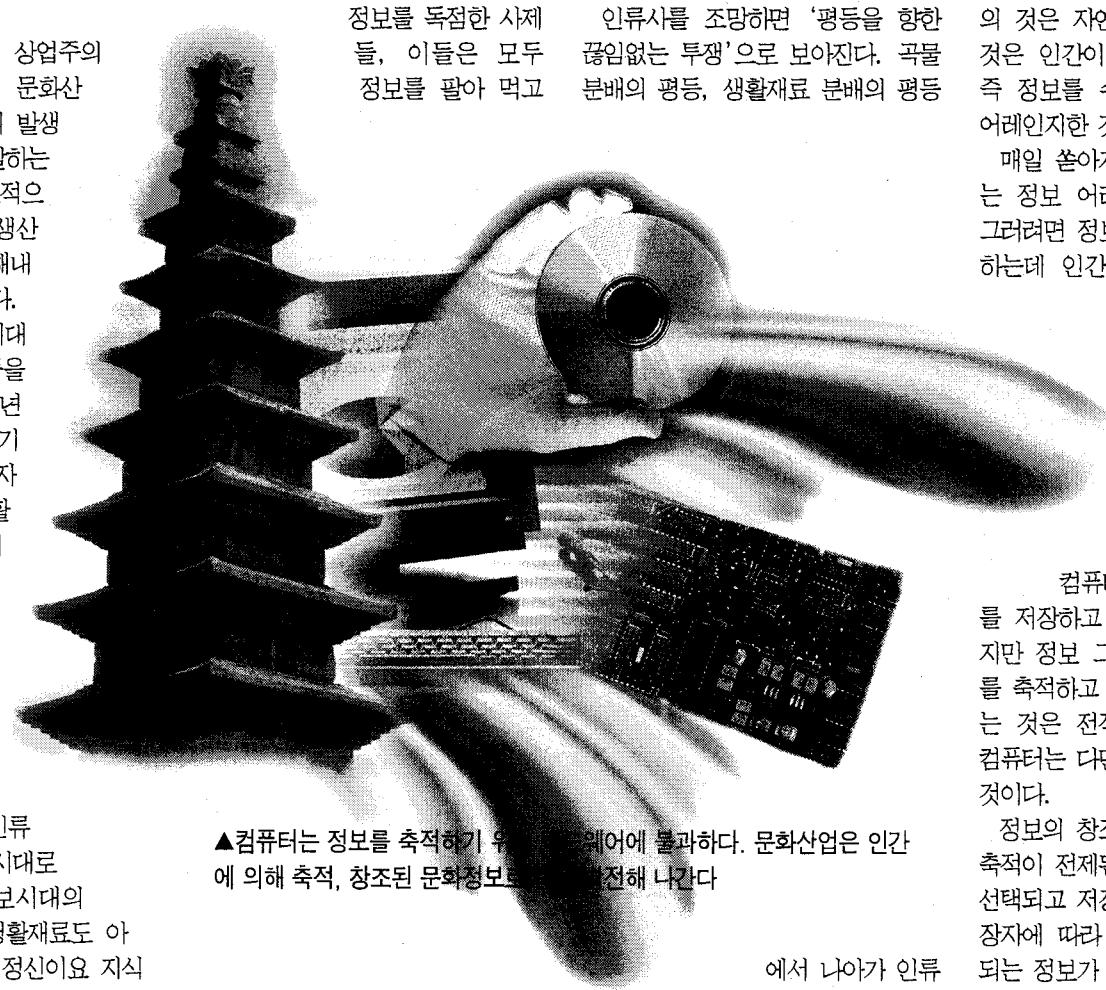
거론된다.

그러나 '쥘리안 공원'의 배경에는 미국의 방대한 정보 축적의 자력이 있다. 다시 말해 '쥘리안 공원'은 미국의 정보축적의 꽃인 것이다.

많은 문화정보 가운데 가장 매력적인 것은 세계 각민족의 전통문화이다. 외국인이 어느 지역을 방문했을 때 제일 먼저 박물관부터 찾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박물관에는 그 지역, 그 민족의 문화정보가 가장 많이 축적되어 있다.

박물관에 대한 관심도 지금까지는 다분히 하드웨어적이었다. 큰 건물과 수집된 많은 유물이라는 것이 관념의 전부였다. 그러나 정보시대가 되면서 이 사고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박물관은 다만 유물을 보여주는 곳이 아니라 문화정보를 전달하는 곳이라는 것이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박물관이라 하지 말고 박물관이라고 해야 옳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박물관을 박물관이라고 했을 때와 박물관이라고 했을 때는 많은 차이가 있다. 수집 내용이나 전시방법에 있어 현격한 변화가 일어난다. 유물은 다만 유리장 안에 모셔두는 귀중품이 아니라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많은 정보를 말하는 '입이 달린 생물(生物)'과 같은 것이 된다. 유물에 입을 달아주는 것은 물론 박물관 관계자의 일이다. 소프트웨어의 작업인 것이다. 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각 방면에 걸친 문화정보의 착실한 축적부터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컴퓨터는 정보를 축적하기 위한 매체에 불과하다. 문화산업은 인간에 의해 축적, 창조된 문화정보에 의해 나간다

생계를 유지했다는 점에서

정보자이다. 공업시대에 들어와서 이 정보업은 산업의 규모를 갖추게 되었다. 학교, 신문사, 방송사 등은 모두 정보산업체이다. 지금까지 어느 시대에도 정보가 그 시대의 주산업이었던 때는 없었다. 이제 정보시대인 것이다.

에서 나아가 인류는 이제 정보 소유의 평등을 향해 힘차게 달리고 있다.

정보시대에는 정보가 양산되고 또 판매된다. 정보는 과거에도 또 현재에도 양산되고 있다. 매일 난만 뜨면 책, 신문, 잡지, 라디오, TV를 통해 새로운 정보가 쏟아진다. 이로써 일상적으로 양산되는 정보와 정보시대의 정보는 어떻게 다른가. 앞

□ '98 사진영상의 해 시리즈 - (1)사업진행 방향

'대중성'이란 화분에 '예술성'의 씨앗을 뿌리자

고 일 석

(**〈'98 사진영상의 해 조직위원회 사무차장〉**)

사진은 표현예술의 한 장르라기보다는 생활의 한부분으로서의 느낌이 더 강하게 새겨져있다. 사진에 대한 대중적인 이미지는 사진이 지닌 가장 큰 생명력인 동시에 문화적 시각에서는 오히려 완전한 표현예술의 한 분야로 자리잡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도 한다.

'98 사진영상의 해의 가장 중요한 방향은 이처럼 사진이 지니고 있는 예술성과 대중성을 명확히 구분하면서도 동시에 적

절히 연결시키는 것이다. 보다 더 솔직히 표현하자면 '사진이 지닌 예술성'을 이미 인식되어 있는 '사진의 대중성'에 심어주는 것이 목표라고 할 수 있다.

'98 사진영상의 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은 △사진박물관 건립 추진사업 △우리 사진찾기 운동 △한국 사진역사전 △경동의 한국현대사진 △'98 사진영상축전 △전국 사진축전 △사진의 시각적 확장전 △인터티브 갤러리 등이다.

이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중점을 두는 사업은 사진박물관을 건립하여 사진이 지닌 문화재적 가치를 정리하는 것이다.

사진이 서양에서 도래한 예술 장르 중에



서 가장 역사가 깊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120년 가까이 사진은 우리의 현대사를 기록해 왔고, 우리의 생활을 기록해왔다. 모든 예술 장르들이 당대의 사회상을 기록하게 되지만, 엄밀히 말해서 과거를 유추할 수 있게 하는 단서 이상의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글 쓰는 순서

- 1. 사업진행 방향
- 2. 현황 및 문제점
- 3. 앞으로의 개선·발전 방향

반면에 사진은 직접적이고 사실적으로 우리의 삶을 기록해왔다.

그러나 그 기나긴 역사를 거쳐오는 동안 축적되어 온 사진유산들은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전국 도처에 뿌뿌이 흩어져 채 세월의 흐름에 따라 유실되고 소실되어 왔다.

박물관은 단순히 과거유산을 보존하는 기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 내는 주춧돌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축적된 유산과 자료가 보다 발전된 형태의 문화로 확대재생산 되는 것이다.

또한 아직 제대로 된 구심점을 가지지 못한 한국 사진계에 있어 사진박물관은 사진과 관련된 모든 활동의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이는 자연히 사진영상 분야의 발전을 촉진하게 될 것이다.

문화관광부가 매년 실시하는 '올해의 문화예술'프로그램의 가장 큰 목적은 보다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문화의 향기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행사가 '98 사진영상축전과 '전국 사진축전'이다.

우선 '98 사진영상축전은 한마디로 사진의 모든 것을 한 자리에 모아 보여주는 것이다. 5월 중순으로 예정되어 있는 이 행사는 각 분야의 최고 전문사진가 집단인

각 사진단체들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사상 최대의 사진전을 개최하여 사진이 아우르고 있는 모든 분야의 진수들을 보여줄 계획이다.

'전국민 사진축전'은 우리나라의 사회구조상 서울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문화행사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명실상부하게 전국민이 모두 참여하여 한바탕 사진잔치를 벌이는 것이다. 1998년의 어느 하루를 '전국민 사진축전'의 날'로 정하여 손에 손에 카메라를 들고 무엇이든 찍어서 기록하게 된다. 특히 '내 고장'이라는 통일된 주제를 부여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체 전시장에 의해 선정된 작품들을 한 자리에 모아 전시하여 이웃들의 슬픔과 삶의 모습들을 함께 느끼고 나누는 자리를 마련한다.

사진의 예술성을 모든 국민들에게 인식시키고자 하는 노력은 결코 1년 안에 마무리지을 수 없다. 어떻게 보면 '98 사진영상의 해'는 작은 시작이며 앞으로 진행될 모든 노력의 '맛보기'라고 봐야할 것이다.

98학년도 2학기 복지장학생 선발 요강

학생인권복지위원회에서 2학기 복지장학생을 선발합니다. 복지장학생은 복지회관의 매점이나 매점, 자판기 임대료를 학우들에게 환원하는 것으로서 집안 형편이 어려운 학우들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복지장학생을 선발합니다.

- ◆ 선발요강
- 1. 선발인원 : 125명(98년도1학기 미선발 인원 25명 포함)
- 2. 지급금액 : 오십만원/1인
- 3. 제출기간 : 5월 19(목) ~ 5월 25(월) 18:00(시간외)
- 4. 교부 및 접수 : 총학생회 학생인권복지위원회 (학생회관 2층/961-0651)
- 5. 최종 선발지 공고 : 6월 1일(월) - 대학주보, 중앙대자보

- ◆ 지급대상
- 1. 1998년 1학기 현재 재학중인 학우
- 2. 1998년도 1학기 성적 2.0 이상일 경우
- 3. 1998년도 1학기 복지장학생 수혜자 제외
- 4. 세부선발점수의 총합이 75점 이상인 경우

- ◆ 선발기준
- 1. 학부모 과목(전체) - 45%
- 2. 학부모 거주지 - 25%
- 3. 학부모 연령 - 25%
- 4. 기본점수 - 5%

- ◆ 제출서류
- 1. 학부모(양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각 1통(父·母 각 1통)
(세대주가 양친이 아닌 경우에는 양친이 속해 있는 세대주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각 1통 및 학부모(양친)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각 1통)
- 2. 학부모(양친) '비과세 증명서' 각 1통('1'항에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예) 父 - 재산세 부과, 母 - 비과세
→ 父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와 母의 비과세 증명서 제출

- 3. 호적등본 1통
- 4. 학부모 주민등록등본 1통
- 5. 산신경안인 증명서 제출(해당자에 한함)-10% 가산점
- 6. 학부모 실직증명서 제출(해당자에 한함)-10% 가산점
- 7. 저가(저가) 중 대학생이 2인 이상일 경우 본인 이외의 자(者) 1명(해당자에 한함)-1명 5% 가산점, 2명 이상 10% 가산점
- 8. 생활보호대상자 증명서 1통(해당자에 한함)-10% 가산점
- 9. 신청서 및 추천서 각 1통(인복위에서 교부)

- ◆ 유의사항
- 1.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총 2통(父·母)인 경우는 1통
- 2.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는 재산세 항목이 반드시 있어야 함 (과세사실 없음과 미과세 증명서 제출자는 해당사항 없음)
- 3. 제출기간이후에는 서류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 4. 선발기준 98년도 1학기 성적 2.0미만인 자는 탈락처리함

- ◆ 기타
- 1. 제출서류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2. 제출서류 중 해당 사항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는 해당항목 0점 처리함.
- 3. 제출서류 중 해당 사항 미(재)인 경우는 해당항목 0점 처리함
- 4. 모든 가산점은 본인 취득점수에 가산함.
- 5. 동점자 처리는 생활보호대상자, 학부모 과세제도, 학부모 연령, 학부모 거주지 순으로 우선권을 부여함(최종 동점일 경우는 성적순)
- 6. 복지장학생 지급은 98년도 2학기 등록금과제에서 감안되어 지급됨.
(단 장학금과 겸직 경우 본인인 선택할 것 - 이중수에 인함)
- 7. 학업미달(2.0미만)과 이종수으로 발생하는 결원은 예비명단에서 총원함
예비명단은 선발지 공고시 20명을 순위를 순회할 공고할 것임.

◆ 세부선발기준

학부모 과목성도	학부모 연령	학부모 거주지	기본점수
미 과 세	45점	양친부재	25점
3,000이하	42점	부모 / 편부	25점
6,000이하	39점	양친 만 60세 이상	19점
9,000이하	36점	그 외	16점
12,000이하	33점		
15,000이하	30점		
그 외	27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학생인권복지위원회(☎961-0651)

"IMF 시대, 희망 가지기" 조합원·교직원 '먹거리 한마당'

- 1. 일 시 : 1998년 5월 20일(수) ~ 5월 22일(금)
(개장시간 : 오후5시30분부터 오후9시)
- 2. 장 소 : 서울캠퍼스 온실주변
- 3. 먹거리 종류 : 주류, 안주 및 식사류(순대, 파전, 골뱅이, 오징어, 찜닭, 김밥 등)
- 4. 티켓구입 안내 : 오천원권, 만원권으로 준비되어 있으며 조합사무국, 각직종대의원, 상집간부에 의뢰하시면 됩니다.
- ★ 티켓은 행사당일 현장에서 판매
- 5. 주 최 : 민주노총·전국대학노동조합연맹·경희대학교노동조합
- ※ 금번 행사는 모든 먹거리를 실비로 제공하며, 수익금은 실직 및 결손가정 자녀돕기에 쓸 예정입니다.

노동조합

음용수에 관한 학술회의

- 1. 일 시 : 1998년 5월 23일(토요일) 오후2시
- 2. 장 소 : 경희대학교 의과관 105 강의실
- 3. 주 최 : 경희대학교 지구환경연구소
- 4. 후 원 : 환경부 음용수관리과, 한국정수기협회조합, Hite음료, 베리안 테크놀로지스 코리아
- 개회사 : 지구환경연구소(사회 : 이기태 교수)
- 협찬사 : 경희대학교 연구처장
- 축 사 : 유재근 국립환경연구원 수질부장
- 5. 발표내용
- 가. 정수기 및 먹는물 관련법규와 제도관리
- 나. SPE-DISC법에 의한 농약성분 분석
- 다. 먹는물 및 먹는샘물 중 미생물학적
- 라. 일본에 있어서 음용수 검사 현황
- 마. 먹는물 중 미생물학적 측정
- 6. 종합토의 : 토의자 한성숙(아태환경연맹),김원민(환경부 음용수 관리과장)

지구환경연구소

특 강 안 내

- 1. 대 상 : 세무관리학과 및 최고경영자 62·63기, 국제상장전문과 과정 2기 전체
- 2. 일 시 : 1998. 5. 19(화) 오후 7시
- 3. 장 소 : 본관 2층 대회의실
- 4. 연 사 : 국제행정개혁위원장 안정남, 국제청 차장
- 5. 특강제목 : 국제행정 개혁 방향

경영대학원 교학부

경영대학원 동문의 날 행사안내

- ◆ 1부 이기태 노동부장관 특강
- 1. 대 상 : 경영대학원 원생 전체
- 2. 장 소 : 도서관 시청각 교육실
- 3. 일 시 : 1998. 5. 20(수) 18:45 ~ 20:00
- 4. 특강내용 : IMF 환경하에서의 98년도 노동정책 방향
- ◆ 2부 학과별 재학생과 동문의 만남
- 1. 일 시 : 1998. 5. 20(수) 20:00 ~ 21:00
- 2. 장 소 : 본관내 배정된 강의실
- 가. 42강의실 - 경영학과 전체
- 나. 44강의실 - 관광경영학과 전체
- 다. 45강의실 - 세무관리학과 전체
- 라. 46강의실 - 무역경영학과 전체
- 마. 48강의실 - 최고경영자과정 62·63기
- 바. 31강의실 - 산업안전관리학과,노사관계관리학과 전체
- 사. 33강의실 - 의료경영학과 전체

경영대학원

경제학원론 재개강

- 1. 기 간 : 1998. 5. 2(토) ~ 6. 25(목) 8주간
- 2. 시 간 :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 10시, 토요일 오후 4시 ~ 7시
- 3. 대 상 : 7급 공무원, 공사, 일반취업, 경제학 체계확립, 교사임용고시 준비자
- 4. 강 사 : 소희영
- 5. 교 재 : 현대 경제학 원론(박영사 출판사)

서울캠퍼스 학생처

제7회 '사회과학포럼' 개최

- 1. 주 제 : 인터넷과 정보혁명 -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 2. 발 표 자 : 박주석 교수(정경대 경영학부)
- 3. 일 시 : 1998년 5월 27일(수) 12:00 ~ 13:20
- 4. 장 소 : 정경대 4층 세미나실
- ※ 참석여부를 사전에 알려주시면 점심준비에 도움이 되겠습니다(연락처 : 961-02118)

사회과학연구원

문 화 단 신

동연, '98동아리 한마당

서울캠퍼스 동아리 연합회에서는 대동제 기간인 오는 20일 오후 3시부터 노천극장에서 '98동아리 한마당 내비퀴'를 개최한다. '구속받는 것들아! 꿈을거둬라?'란 부제 아래 개최될 이번 행사는 서울캠퍼스 Rock 동아리 NAKBD의 개막공연을 필두로 약 4시간 동안 진행되며, 공연·체육·전시·창작·학술·봉사분과의 총 15개 동아리가 참여하게 된다.

CHAOS 정기공연

수원 캠퍼스 Rock 동아리 CHAOS가 오는 20일 오후 4시 공대 앞 중앙무대에서 정기공연을 갖는다. 공대 학생회와 전자공학과 학생회의 후원으로 열리는 이번 공연은 CHAOS 창립 10주년을 기념하는 연주이기도 하다. 23곡의 연주를 통해 열정적인 분위기를 연출할 계획이다.

제4회 서울 단편 영화제



제4회 서울 단편 영화제가 오는 21, 22일 아주대 음극장에서 열린다. 아주대 인문대 학생회와 민예총 수원지부 영화위원회 등이 주관한 이번 영화제에는 '변방에서 중심으로'의 초청작품을 포함하여 '열일곱', '집으로 가는 길' 등 11편의 단편 영화가 상영된다. 21일은 4, 6, 8시 공연이며, 22일은 5, 7시 공연으로 입장료는 2000원이다.